

부문별 주요 기사

10월 1일 ~ 10월 31일

- | 대내경제
- | 대외경제



부문별 주요 기사

10월 1일~10월 31일

대내경제 72

<농업 및 식량>

가뭄과 폭우의 영향으로 올해 북한 식량 수확량 감소 예상
일부 지방에서 주민 배급 재개

<건설>

북한 당국, 원산 관광지 개발과 삼지연 사업에 총력

<시장>

북한 장마당에 상품광고 등장
유엔 대북제재 영향으로 북한 민수용 석탄 가격 하락세

대외경제 74

<대북제재>

미국 대북제재 강화기조 유지
대북제재에도 북한산 수산물 거래

<북중관계>

북중 관광, 투자 및 접경지역 거래 확대

<국제금융기구 가입>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해외 노동자>

중·러 북한 노동자 파견 현황
북한 출입국 절차 간소화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

대내경제

<농업 및 식량>

중앙일보(10.1), RFA(10.3, 10.9, 10.11, 10.16, 10.23), VOA(10.5)

가뭄과 폭우의 영향으로 올해 북한 식량 수확량 감소 예상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세계 식량안보 보고서(Early Warning Early Action report on food security and agriculture)’에서 2018년 북한의 식량 수확량이 전년대비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함. FAO는 7~8월 가뭄과 8월 하순 황해도와 함경도 지역에 집중된 폭우가 농작물과 주요 농업기반시설 및 식량 저장 창고에 큰 피해를 주었다고 설명함. 아울러 최대 피해 작물로는 옥수수라고 덧붙임. 반면 미국 농무부는 ‘쌀 전망 보고서(Rice Outlook: October 2018)’를 통해 북한의 주요 곡창지대 위성 자료와 국제기구의 통계치 분석 결과 북한의 쌀 수확량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일부 지방에서 주민 배급 재개

북한 당국은 지난 2월 광명성절에 가구당 식용유 한 병과 지하족(노동화) 한 켤레를 배급한 이후 4월 태양절(김일성 생일), 북한정권수립일, 추석, 당 창건 기념일 등 명절과 정치적으로 중요한 기념일에도 특별배급을 전혀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주민 대상 배급은 부분적으로 재개한 것으로 전해짐. 함경북도의 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북한 당국이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 평균 15kg의 옥수수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짐. 이번 배급은 북한 당국이 전시 예비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식량을 주민 배급으로 풀고, 햇곡식으로 교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아울러 한 대북 소식통은 남북 및 북미회담 이후 생활향상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에 부응하고자 주민 배급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임.

<건설>

경향신문(10.30), 국민일보(10.29), 동아일보(10.20, 10.31), 중앙일보(10.31), RFA(10.10, 10.12, 10.22, 10.30)

북한 당국, 원산 관광지 개발과 삼지연사업에 총력

올해 신년사에서 밝힌 4대 중요 대상 건설(삼지연군 꾸리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단철발 전소, 황해남도 물길 공사)을 위해 북한 당국이 인원과 물자를 집중 투입하고 있다는 보도임.

원산해안관광도시 개발의 경우, 내년도 4월까지 끝내라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북한 당국이 약 10만명의 인민군인들을 투입하고 각 도시별로 공사 구간을 배분해 사회주의 생산증산 경쟁을 부추기고 있음. 또한 외화벌이 기관들이 건설자재 수입에 열을 올리고 있음. 단동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전력 부족으로 시멘트와 철강 생산이 어려운 북한이 공사 기일을 맞추기 위해 무역회사들을 중심으로 중국에서 대량의 시멘트와 철강재를 수입하고 있다고 전함.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는 양강도 삼지연군 개발과 관련해 자금 공출과 인원 동원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짐. 2016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지시로, '혁명의 성지'라고 불리는 삼지연군은 국제적인 관광 특구로 지정됨. 이에 따라 현재 북한 당국은 혜산시와 삼지연군을 잇는 철도 공사에 집중하고 있으며, 돌격대와 군인을 포함해 수 만명을 동원하고 있다는 보도임.

<시장>

RFA(10.24, 10.26), 아시아경제(10.25)

북한 장마당에 상품광고 등장

북한에서는 광고 행위가 비사회주의 요소로 인식되어 텔레비전에서도 광고는 배제되어왔음. 그러나 최근 장마당에서 개인 장사꾼들이 상품을 선전하는 광고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소식임. 한 대북 소식통은 광고표지판이 가장 많은 매대는 담배, 쌀 음식 등 대중들이 많이 찾는 소비품 매대이며, 광고표지판을 만들어주는 전문인력까지 등장했다고 전함.

유엔 대북제재 영향으로 북한 민수용 석탄 가격 하락세

북한의 민수용 석탄 가격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 서민 생계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보도임. 이는 대북제재로 수출이 어렵게 된 석탄이 장마당에 풀리면서 주민들이 다른 연료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석탄을 구입 할 수 있게 됨. 유엔 대북제재가 있기 전인 2016년 북한의 민수용 석탄 가격은 톤당 200위안에 거래되었으나, 현재 평안북도의 경우 톤당 120~130위안 정도로 거래되고 있음.

대외경제

<대북제재>

매일경제(10.5, 10.27), 한국경제(10.19), 조선일보(10.27)

미국 대북제재 강화기조 유지

미국 재무부는 10월 4일 북한과 무기 및 사치품 거래를 한 터키기업 1개와 터키인 2명, 주몽골북한대사관 참사관 1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함. 터키 기업인 시아 펠컨 그룹은 북한의 무기 관련제품을 직간접적으로 교역하고, 주몽골북한대사관의 리성운 참사관은 관련 거래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음.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위해 대북제재 강화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음. 10월 25일에는 2018년 9번째 독자제재로 싱가포르 기업 2곳과 개인 1명을 독자제재 명단에 추가함. 싱가포르 무역회사인 '위티웅'과 해상연료 회사인 'WT마린'과 지배인은 2011년부터 북한을 위한 자금세탁(통화 위조, 마약밀거래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음.

미국은 최근 국제사회에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길 바란다고 강조. 미국 재무부는 466개의 북한 관련 기업(개인)에게 세컨더리 보이콧 위험 문구를 더해 경고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제재완화의 움직임을 차단하고 있음.

대북제재에도 북한산 수산물 거래

북한산 수산물 거래를 금지한 유엔의 대북제재에도 북중접경지역에서는 북한산 수산물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수입이 금지된 북한산 수산물은 대형 마트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밀수를 통해 재래시장에서는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소식통은 전함. 다만, 제재로 인해 북한산 수산물의 가격은 제재이전보다 높은 수준(약 3배 이상)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남.

<북중관계>

국민일보(10.3), 매일경제(10.3), news1(10.31)

북중 관광, 투자 및 접경지역 거래 확대

중국의 국경절(10월 1~7일) 북중접경지역인 단동에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하였다는 보도임. 국경절 연휴 기간 하루 1천 여명이 방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중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다고 전함. 또한 북한은 최근 원산 관광특구 건설을 위한 중국인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고 함. 투자 대상은 북한의 호텔, 대형 식당 등 북한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한 시설이며, 북한은 특히 중국기업과의 합작형태의 투자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소식통은 전함. 하지만 북한에 과거 투자를 하였다가 손해를 본 중국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여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는 해석 존재함.

한편, 북중 접경지역인 단둥에서의 북중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함. 대북제재가 고조된 시기 북한산 물품에 대한 엄격한 검문이 있었던데 반해, 최근 두달만에 분위기가 반전되었다고 함. 특히 소규모로 거래되는 북한산 수산물에 대한 검문이 최근 감소한 것으로 소식통은 전함. 지난해 11월 대북제재로 운영이 중단되었던 접경지역의 북한식당도 다시 운영중에 있음. 단둥에는 약 2~3만명 정도의 북한 주민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봉제공장이나 수산물 가공 등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소식통은 전함.

<국제금융기구 가입>

머니투데이(10.02), 연합뉴스(10.17), VOA(10.12)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외교협회 초청강연에서 북한이 IMF나 WB에 가입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힘. 국제금융기구 가입은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를 가짐. 과거에도 한국정부는 남북 관계가 좋으면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필요성 강조해왔음.

한편, 모히엘딘 세계은행 부총재는 북한이 WB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밝힘. 또한 세계은행에 가입하려면 자매기관인 국제통화기금과 같이 공동 가입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 적절한 시기가 오면 세계은행이 재무·기술적으로 지원할 가능성도 있음을 언급.

<해외 노동자>

RFA(10.12, 10.19, 10.23), 조선일보(10.28)

중·러 북한 노동자 파견 현황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마땅한 일거리가 없어 귀국 대기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짐. 러시아는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영하의 날씨로 모든 건설이 중단됨. 이에 따라 건설현장을 찾지 못하거나 건설공사가 예상보다 일찍 끝나는 경우, 근로자들은 빈손으로 귀국해야 하는 상황.

반면 중국에서는 북한 노동자 증가가 관찰됨. 중국 지린성 훈춘 등지에는 북한 노동자가 계속 유입되고 있음. 훈춘시의 제약 및 의류공장에는 북한 노동자 2천여 명이 일하고 있으며, 수시로 북한 노동자가 신규 유입되고 있음. 또한 중국 단둥시에서는 북한의 젊은 여성들이 사우나 업소 등 중국 서비스 업체에서 일하는 모습이 확인 됨. 지금까지 북한 여성들은 중국의 식당과 의류업체 등에 고용되었지만, 사우나까지 진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

북한 출입국 절차 간소화

북한 당국은 출입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비자 기한이 만료된 북한 노동자의 재출국 수속 기간을 축소함. 과거에는 재출국 수속이 완료될 때까지 몇 주에서 수개월씩 기다려야 했음. 지금은 재출국 허가 서류를 미리 작성해 두었다가 당일에 재출국 시킴. 외화벌이를 위해서는 중국 파견 근로자들의 장기간 근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절차를 간소화 한 것으로 보임.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RFA(10.26)

아래 표는 10월 한 달 간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소식 목록임.

단체 (국가명)	지원일	지원품	지원액 혹은 지원량	비고
유럽연합	2018.8	지원금	11만달러(10만유로)	황해남도 산사태와 홍수피해 인도적 지원

기사 원문 리스트

- [2018.10.01] “내년은 쥐도 굶어 죽는 해”...폭염·가뭄 휩쓴 북한 식량난 걱정 (중앙일보)
- [2018.10.02] IMF 가입 원하는 北, 지렛대 놓는 韓 (머니투데이)
- [2018.10.03] FAO “북, 올 연말 식량사정 더 악화될 것” (RFA)
- [2018.10.03] 북중접경 단둥도 ‘국경절 특수’...중국인 관광객 몰려 (매일경제)
- [2018.10.04] “북 지방 공장, 전력난으로 가동 중단” (RFA)
- [2018.10.05] “북한, 식량안보 농업 부문 위험 주시해야 할 국가” (VOA)
- [2018.10.05.] 美재무부, 北과 무기, 사치품 거래 터키 기업 北외교관 제재 (매일경제)
- [2018.10.08] 북, 개인 사업자들에 과도한 기여금 부과 (RFA)
- [2018.10.09] 북 식량공급 여전히 불안정...지원 절실 (RFA)
- [2018.10.10] 북, 원산관광지 개발 위해 건설자재 대량 수입 (RFA)
- [2018.10.11] 북 식량사정 지난해 보다 더 악화 (RFA)
- [2018.10.12] 북 주민, 김정은 관심 삼지연사업 동원 불만 (RFA)
- [2018.10.12] 한국, IMF에 '북한 개혁·개방' 협조 요청 (VOA)
- [2018.10.12] 러시아의 북한근로자들 일거리 없어 빈손 귀국 (RFA)
- [2018.10.16] 특별배급 사라진 북, 경제 효율성 타? (RFA)
- [2018.10.17] <북한내부> 김정은 정권, 드디어 '지도자의 선물' 포기했다... 당창건기념일 '특별배급' 없는 이유는? (아시아프레스 북한보도)
- [2018.10.17] 세계은행 부총재 "북한, 가입하려면 국제사회 기대 부응해야" (연합뉴스)
- [2018.10.18] 북, 일부 지방주민에 식량공급 재개 (RFA)
- [2018.10.19] 북, 젊은 여성들, 중국 사우나에서 외화벌이 (RFA)
- [2018.10.19] 북한과 교역하면 미국과 거래 금지...美대북제재 세컨더리 보이콧 명시 (한국경제)
- [2018.10.20] '북한판 유전무죄 무전유죄' 상징된 삼지연 개발...주민들 불만 고조 (동아일보)
- [2018.10.22] 북, 중국주재 무역일꾼에 '시멘트 과제' 부여 (RFA)
- [2018.10.23] 미 농무부 “북 올해 쌀 수확 소폭 증가 예상” (RFA)
- [2018.10.23] 북, 중국과건 근로자들 귀국 당일 재출국 시켜 (RFA)
- [2018.10.24] 주민들, 겨울철 앞두고 석탄가격 안정에 안도 (RFA)
- [2018.10.25] 대북제재의 역설...北주민들, 따뜻한 겨울 (아시아경제)
- [2018.10.26] 북 시장 매대에 광고표지판 등장 (RFA)
- [2018.10.26] 유럽연합, 95년부터 '1억 8천만 달러' 대북지원 (RFA)
- [2018.10.27] 美, 올 9번째 대북제재...개성공단 기업인 방북도 '경고' (조선일보)

- [2018.10.27] 대북제재에도 北노동자, 수산물 중국에 꾸준히 유입 (매일경제)
- [2018.10.28] 중국 훈춘에 北노동자 2000명... 대형 버스로 속속 유입 (조선일보)
- [2018.10.29] 노동신문 "김정은, 삼지연군 찾았다"...19일만에 공개 행보 (국민일보)
- [2018.10.30] 김정은 위원장, 삼지연군 건설현장 시찰...19일 만에 공개활동 (경향신문)
- [2018.10.30] 북, 원산 관광지구에 외국인 투자 손짓 (RFA)
- [2018.10.31] 北 김정은, 원산관광지구 3차 시찰 "다음해 10월10일 보란듯 일어설 것"
(중앙일보)
- [2018.10.31] 北, 원산 관광특구 자금 위해 中 여행사에 손벌러 (동아일보)
- [2018.10.31] 北 원산특구 자금 위해 中 여행사에 손벌러 (news1)